

KISTEP 통계 브리프 2006-33호

OECD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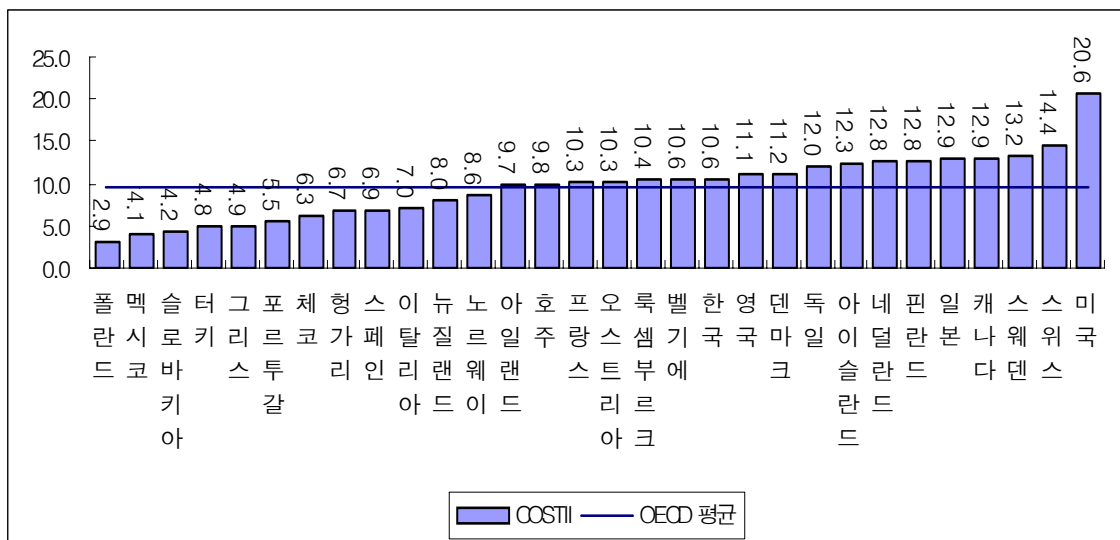


□ 국가별 COSTII 현황

- 우리나라는 COSTII가 10.6(OECD 평균 9.6)으로 30개국 중 12위를 차지
 - 미국이 20.6으로 1위이고, 스위스(14.4), 스웨덴(13.2)순으로 나타남.
 - 미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스위스가 미국의 69.8% 수준이며, OECD 국가 13개 국가만이 미국의 50%이상의 혁신역량수준을 유지함.
- COSTII OECD 평균값을 기준으로 30개국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우리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B그룹에 속함
 - B그룹은 COSTII 값이 OECD 평균 이상이나, 일부 부문에서 역량 개선이 필요한 국가임.
- 지난 8년간('98 ~ '06) 한국의 COSTII 증가율은 연평균 3.73%로,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신장됨.
 - A그룹 중에서는 핀란드가 연평균 2.01%로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임.

* COSTII(Composit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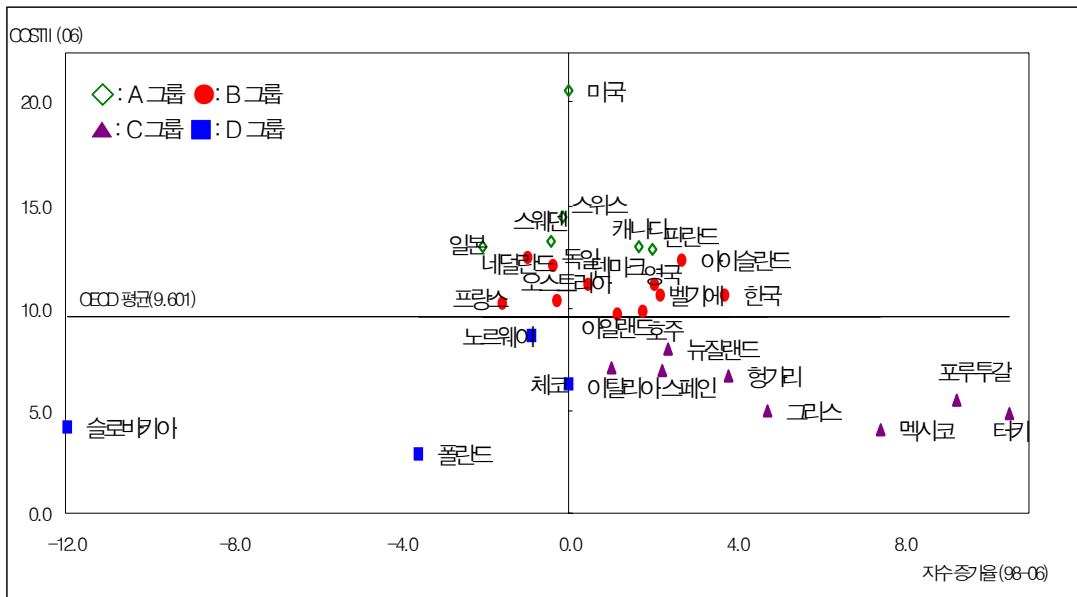
<그림 1> OECD 30개국의 COSTII



<표 1> OECD 30개국의 유형별 분류

A그룹	COSTII 값이 OECD 평균 이상이고, 5개 부문이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	미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일본, 핀란드
B그룹	COSTII 값이 OECD 평균 이상이나, 일부 부문에서 역량 개선이 필요한 국가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덴마크, 영국, 한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C그룹	COSTII 값이 OECD 평균 이하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
D그룹	COSTII 값이 OECD 평균 이하이고, 성장이 정체 또는 감소상태에 있는 국가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림 2> OECD 30개국의 지수증가율



* 본 자료는 과학기술부의 종합조정지원사업 일환으로 KISTEP이 수행한 “2006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결과보고서 중 일부임

* 자료관련 문의: 혁신지표팀 (02-589-2829)